



# 한울림 김남중 | 편집부

명화와 동화의 어울림 보여주는 한울림의 첫 어린이책

한울림은 10년을 넘게 육아교육서를 낸 출판사다. 그래서인지 주위 사람들 대부분 한울림에서 나올 첫 어린이책은 유아그림책일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 《동화로 읽는 명화 이야기》가 첫 책으로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인 국내기획물이라는 점에서 “한울림답다”는 말과 초등기획물이라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후일담이라면 후일담이다.

《동화로 읽는 명화 이야기》는 5년 전쯤 모출판사에서 세계 명작 《플랜더스의 개》를 만들면서 시작된 기획이었다. 담당 편집자로서 읽는 《플랜더스의 개》는 어릴 때 느꼈던 그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화가의 꿈을 키우는 네로가 결국 차가운 성당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분명 독자의 나이를 떠나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떤 그림이기에 네로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온힘을 다하였을까. 그림을 보며 죽어가는 네로의 모습은 처절하고 쓰리기보다는 가슴 뭉클한 뜨거운 무엇이 느껴진다.

문득, 김동인의 〈광염 소나타〉를 생각하면 미친 듯 열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듯하다. 음악에 문외한인 나도, 책 속에 음악의 악보 한 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적인 선율이 들리는 건 분명 〈광염 소나타〉의 힘이다. 또 하나,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캐럴〉 마지막 부분을 읽다보면 담 너머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음악이 들려온다. 역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책 속에 음악에 대한 거창한 설명 한 줄 없어도 말이다.

직접적인 설명이 줄 수 없는 감동이 앞의 책들에서는 분명 있었다. 《플랜더스의 개》에서 네로가 죽어가며 보았던 루벤스 그

림의 정보를 스토리 안에 구구하게 늘어놓았다면 어땠을까? 〈광염 소나타〉나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자세한 음악의 설명을 함께 실어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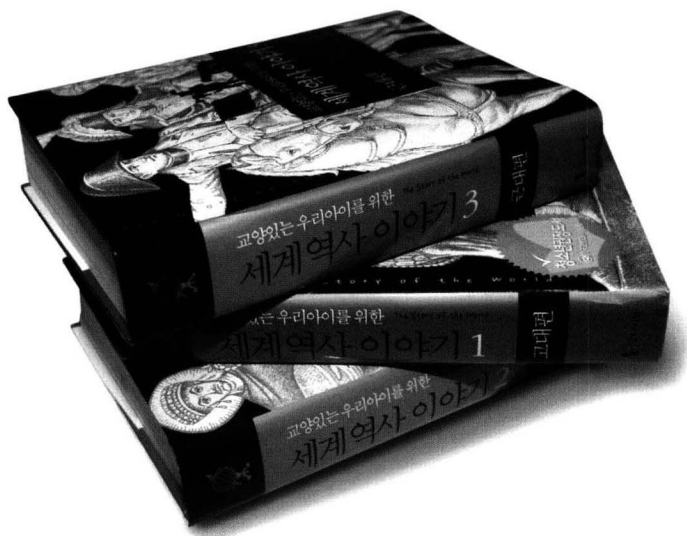
작년에 유럽의 한 미술관에서 루벤스의 그림 〈천상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감동은 명화 자체가 주는 미적 감동도 있겠지만 《플랜더스의 개》를 통해 형성된 그 무엇과 함께 증폭되어 나만의 특수한 ‘그림을 보는 눈’이 형성된 것이 분명하였다.

그런 기획의도에서 동화작가 열 분이 명화 한 점씩을 골라 명화의 감동을 동화로 풀었다. 국내 화가는 심사정, 장승업, 장욱진, 이중섭, 김홍도, 신사임당, 이암, 오지호 등이고 외국 화가는 고희, 마티스, 피카소, 루소, 밀레, 루벤스, 레핀, 모네, 브뤼겔, 도미에 등이다. 각각 명화 한 점씩을 골라 그 그림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피하고 그림에서 얻은 영감이나 그림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설정하여 동화로 쓴 것이다.

몇 년 사이에 어린이책에서 기획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화와 정보의 결합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몇몇 책들은 독자인 어린이에 대한 배려 없이 형식적으로만 동화의 정보를 ‘짬뽕’해 놓은 것도 사실이다. 《동화로 읽는 명화 이야기》 역시 그러한 트렌드 선상에 놓여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 그 안에 ‘어린이’가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곁들인다. **한울림**

《동화로 읽는 명화 이야기》(한국판, 외국판)  
김기정 외 지음 | 각권 11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 이론과 실천 최신숙 | 편집부

세계를 무대로 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양

누구나 처음 이 책을 보면, “이거 애들 책 맞아?”,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애들이 읽어?” 하는 선입관을 가진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책을 펼치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이 책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현대> 편이 언제 출간되는지 문의해 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이가 그 두꺼운 양장의 책을 몇 번씩이나 읽더라는 것이다. 어린이가 교양도서로 가장 분량이 많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들이 느끼는 뿌듯함과 만족은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까지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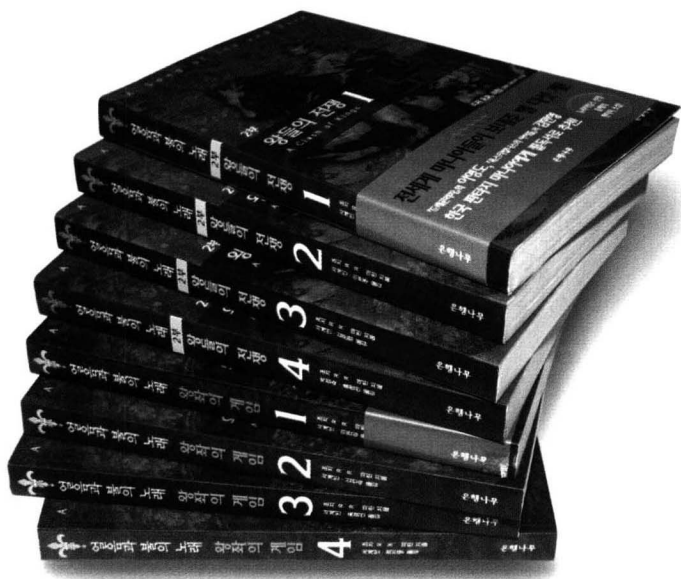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답은 ‘역사는 옛날이야기’ 라는 것이다. 그럼 옛날이야기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교훈이 녹아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관련된 아동책을 보면 ‘역사 정보’로 딱 차 있어 재미보다는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옛날이야기다. 전편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 사실들은, ‘내 아이’가 세계 역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는 작가(홈스쿨링을 하는 어머니이자 교수이자 소설가)의 교육적 의도 속에서 ‘선별’된 것들로, 민담·전설·신화·일기·기록·문학 작품 등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옛날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소설가’이기도 한 작가가 창조해 낸 아이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알려 주는 대목은 어린 독자들을 수천, 수백 년 전 역사 속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유목 생활을 하다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정착하는 소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이야기, 성에서 숨바꼭질하는 남매 이야기 등은 재미로 우선 다가온다.

어린이 세계 역사 입문서로 가장 잘 써졌다고 인정받는 이 책은, 원서가 출간된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페이지백(포켓판 엮가본) 형태로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다. 처음 원서를 보면 성인 책인 줄 안다. 어른들이 가볍게 읽고 던져 버리는 소설책처럼 표지나 본문이나 전혀 아동책 같지 않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잘 읽는다. 그런 책을 출판사 내부에서 편집 방향을 잡으면서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판형을 키우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세밀화를 넣고, 서체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러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역시나 ‘분량’ 때문이었다. 300쪽 이상 되는 분량은 어른도 부담스러운데 아이들 책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다. 번역과 교정이 진행되면서 몇 주, 몇 달의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론은 책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책 내용과는 별개로, 그런 분량의 독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책의 판매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지만(책의 두께는 책을 읽기 싫게, 사기 싫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대로 밀고 나갔다. 다행히 작년 한 해 꾸준히 부모님, 아이들,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매체의 애정을 받아 4군데의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올해 6월경이면 마지막 4권인 <현대> 편이 나온다. 작가 수잔 바우어가 현재 열심히 쓰고 있다. <현대> 편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20세기 21세기의 침략과 전쟁, 대립으로 소용돌이치는 세계 역사를 과연 어떻게 아이들에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 1, 2, 3》 <고대>, <중세>, <근대> 편 수잔 바우어 지음 | 이계정·최수민 옮김 | 정병수 그림 | 꼬마이실(이론과실천) | 각 권 440쪽, 580쪽, 624쪽 / 1권 16,000원, 2권 19,000원, 3권 20,000원



# 은행나무 권영민 | 편집부

《반지의 제왕》에 필적하는 유일한 판타지

《얼음과 불의 노래》는 《반지의 제왕》에 대적할 수 있는 단 한 편의 판타지'로 일컬어지는 대작이다.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스펙터클, 왕권을 둘러싼 숨 막히는 음모와 배신, 저마다의 빛깔로 살아 꿈틀대는 캐릭터... 이 모든 요소들이 총 3부, 5,000페이지(한국어판 기준)에 달하는 방대한 이야기 속에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다. 분량 면에서는 이미 《반지의 제왕》을 능가하는 이 작품은 지금도 여전히 그 거대한 파노라마를 쉽 없이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에 발표된 <폭풍의 성검>에 이어 4부가 집필 완료 단계에 들어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는 저자가 'The End'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힘들다.

한 작품이 무려 10년 가까이 집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얼음과 불의 노래》는 판매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1, 2부는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랭크된 바 있으며, 3부는 예약판매 1위를 차지한 이래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판타지 부문 부동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 미국 현지의 상황일 뿐이다. 2000년과 2001년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열화와 같은 반응을 얻기는커녕, 판권 계약까지 마친 3부의 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판매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대형출판사도 아닌 터에 이처럼 방대한 작품의 출간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은 《드래곤 라자》에 의해 불붙은 창작 판타지의 봄 때문이었다.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다. 함량 미달의 작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공인받은 《얼음과 불의 노래》를 선보인다면,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판타지 시장에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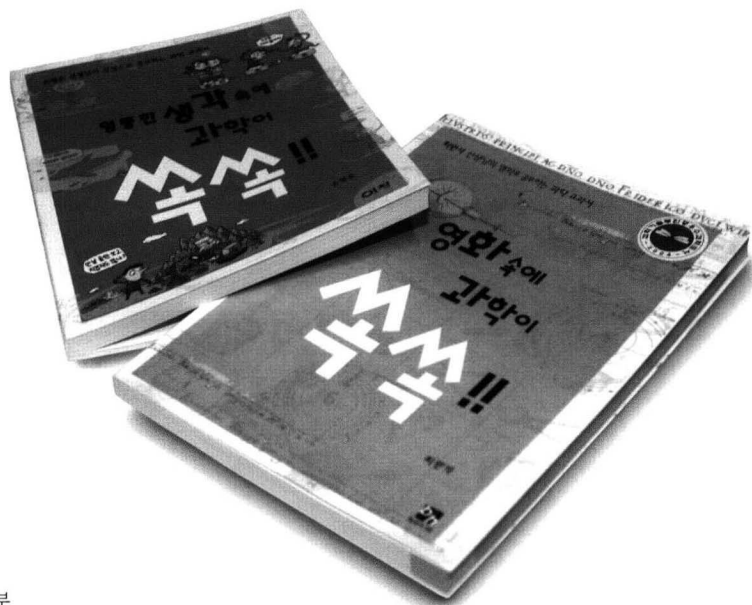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엄청난 판단 착오였던 셈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00년 무렵은 《반지의 제왕》이 아직 《반지전쟁》(예문)이라는 제목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때였고, 피터 잭슨의 영화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출판시장은 본격 판타지에 열광할 준비를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부진한 판매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었던 것은, 대다수가 '얼음'처럼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할 때 소수의 마니아들이 '불' 같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잇을 만하면 '도대체 3부는 언제 나오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출간을 쉬이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독자들의 체찍질은 계속되었다. 참 '무서운 독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부 <폭풍의 성검>이 한국 독자들을 찾아간다. 여차피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책이 될 거라면, 그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애장판으로 퍼내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지 편집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늦어도 2월 초에는 각권 약 1,000페이지 분량의 양장본 두 권으로 독자들의 손에 건네줄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얼음과 불의 노래》 3부가 선보이는 것은 순전히 열성독자들 덕이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만이 독야청청 위용을 뽐내고 있는 판타지 시장에서 《얼음과 불의 노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불' 같이 열광해 준 마니아들과 '얼음'처럼 냉랭했던 이들이 어색하게나마 부디 화음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

《얼음과 불의 노래》(전 8권, 제1부 <왕좌의 게임> 4권, 제2부 <왕들의 전쟁> 4권)  
 조지 R.R. 마틴 지음 | 서계인 외 옮김 | 각권 330쪽 내외 | 각권 값 7,500~8,000원



## 이치 이진경 | 편집부

###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과학책 없을까?

어디서건 외부와 연결되는 자유로운 이동통신, 하루의 의상 선택과 갑작스런 일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기예보.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교통카드, TV, 컴퓨터 등을 통해 첨단기술과 조우한다. 우리의 생활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난해한 공식과 그래프, 복잡한 선들로 뒤엉켜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과학 시간만 되면 괜히 머리가 아파오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었다. 나에게 과학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었던 대상이었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남아 있었던지 주저없이 문과를 선택하였고,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 입사했다. 북스힐은 출판사 중에서도 이공계 전문 출판사였지만, 당시 나는 과거의 멀기만 했던 과학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입사 후 딱딱한 공대 교수님들의 원고를 다듬다보니 과거의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과학에 대한 막연함에 '성질'이 났다. 출퇴근길, 남이 걸논질해서 볼까봐 예쁜 포장지로 싼 고등학교 공통과학 교과서를 들여다보았지만 문과 출신인 나에게도 역시 무리였다. 우선 공식을 외워야 했고 개념은 정리가 안 되었다. 그때 문득문득 들었던 생각이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과학책을 쓸 수 없는 것일까?'였다. 그러다가 만난 원고가 "영화 속에 과학이 쭉쭉"이었다. 원고는 우선 과학적 수준이 낮았던 나에게 부담 없이 읽혔다. 산뜻하게 다가가서 머릿속에 하나둘씩 과학의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과학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화 속에 과학이 쭉쭉》은 나의 필요만큼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었던 듯싶다. 무엇보다 110여 편의 영화 속에서 찾아낸 숨은 과학은 학생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과학에 대한 이 책의 접근법은 학교에서 배우는 각종 이론과 복잡한 실험에서 벗어

나 상상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빙산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힘과 운동방향의 변화를 설명하고, <고질라>로 돌연변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하였다. <물란>을 통해서도 정반사와 난반사를, <슈렉>으로는 분자운동을 나타내었다. 그야말로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대학교재 전문 출판사라는 상호에 대한 인식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 청소년용 교양과학 도서에 다가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회사 내에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자 몇 번의 편집회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청소년 과학도서를 전문으로 할 브랜드를 공모하였다. 그렇게 해서 도서출판 이치가 만들어졌고 내친김에 더 쉽고 부담 없는 소재를 찾자는 의견으로 '과학이 쭉쭉 시리즈'가 기획되었다. 지난해 12월 쭉쭉 시리즈의 두 번째 도서인 《영광한 생각 속에 과학이 쭉쭉》이 세상에 나왔다. 영광한 호기심으로 과학에 다가가 보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였다. 그 다음에 나올 책은 《스타크래프트 속에 과학이 쭉쭉》이다. 봄이면 학생들은 게임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 우리의 욕심은 기획 시리즈 15권 중 금년 안으로 10권 정도를 펴내는 것이다.

즐거운 과학 읽기의 시도였던 《영화 속에 과학이 쭉쭉》은 지난해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현재 중국의 호남 과학기술출판사와 대만의 한상문화에서 계약해 중국어로 번역작업중에 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과학, 나쁜 아니라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였나 보다. **이치**

《영화 속에 과학이 쭉쭉》 최원석 지음 | 이치 | 270쪽 | 값 12,000원

《영광한 생각 속에 과학이 쭉쭉》 손영문 지음 | 이치 | 246쪽 | 값 12,000원